
화학기업, 사이버보안 시급하다!

RC와 부합하고 ACC도 적용 추진 ... 벤더기업과의 협력이 중요

CIDX가 2003년 미국의 35개 화학기업들과 발족한 사이버보안대책(Cyber Security Initiative)이 Responsible Care Code와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보안지침들이 Responsible Care Code와 일치하고 American Chemistry Council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요한 문제는 플랜트의 물질적인 보안요소에서 사이버적인 보안요소를 결정한 뒤 취약점을 전체적인 평가 방법론에 통합하는 것으로, American Chemistry Council Tier I 플랜트 및 Tier II 플랜트는 보안취약성 평가를 각각 2003년 초 및 중반 끝냈다. 물질적·사이버적 요소를 모두 평가해 가동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이버보안대책은 또한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CIDX Initiative는 초기에 화학제품을 포함한 주요 인프라 산업의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와 주로 협력했으나 세계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미 유럽에서 보안 니즈(Needs)를 파악하고 있다.

CIDX는 2003년 5월 회의에서 몇몇 새로운 보안대책을 발표했다. 새로운 프로젝트로는 참조모델 개발, 위험 평가 방법론, 표준기관 및 협회조사, 우선분야 결정, 회원확대, 벤더기업 협력프로그램 개발, 교육 및 인지도 개발,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및 운영체계 개발 등이다.

CIDX는 포괄적인 참조모델이 화학기업들의 운영환경 및 상호작용을 반영해 화학산업의 분위기를 나타낼 것이고 벤더기업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시장 요구를 반영한 신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IDX는 또한 데이터 및 아이디어를 조기 수집하고 벤더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조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벤더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 및 인지도 프로그램과 관련해 10개 무역협회로 구성된 Chemicals Sector Cyber-Security Information Sharing Forum도 유통채널이 되고 있다. CIDX는 또한 회원을 확대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참여기업들은 전문 기술 및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

사이버보안대책이 당면한 과제의 하나는 사이버, 프로세스통제 및 물리적 보안간의 안전 상호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호하는 일로 나타나고 있다.

CIDX Initiative의 목적은 산업 포럼을 통해 시장전반의 사이버보안을 개선하고 자발적인 경영표준을 확립할 뿐만 아니라 기타 산업의 전문기술을 합병함으로써 취약점, 솔루션, 시행전략의 지식기반을 확충 및 유지하는데 있다. 또 기술 및 솔루션 개발이 관련된 한 서비스 공급기업, 정부 및 학계가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개발 및 상업화해야 한다.

<화학저널 2004/05/31>